서울 코엑스 '월드IT쇼' 개막

첨단 융합·탈 통신…

'스마트'한 내일을 보라!

광주 5개 업체 등 국내 500여 업체 참가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총망라

미국 라스베가스 '세스'(CES),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독일 하노버에 '세빗'(CeBIT)이 있다면 국내에는 '월드IT쇼'(WIS)가 있다.

국내 최대 글로벌 IT전시회인 월드IT쇼가 11일부터 나흘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광주지역 5개 IT/SW업체가 참가해 지역 IT기술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 발굴에 나선다.

차세대통신, 멀티미디어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500여 개의 IT관련 업체들이 총 1200여 개의 부스 규모로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Get IT Smart'로 최대 화두는 '탈 통신'이다.

탈 통신은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생활 편의 등으로 서비스 폭을 넓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전시항목은 ▲스마트기기, SNS, 4G, 방송 편집 및 제작장비 등의 'Mobile & Broadcasting' ▲스마트TV, U-CITY, 차세대PC 등의 'Digital Electronics' ▲각종 솔루션, OS, 애플리케이션, 각종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의 'SW(Contents) & Solution' ▲건설, 국방, 로봇, 의료, 가전 등과 결합하는 'IT Convergence' ▲반도체, 하드웨어 등의 'Industrial Electronics' 등이다.

◇최대 화두 '탈 통신'=SKT는 월드IT쇼에서 '개방과 협력'이란 주제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롱텀에볼루션) 단말기를 처음 공개할 계획이다. LG전자의 SD711과 시모텍의 CLR-1000KS 등 두 가지 모델로, 전시회 참가자는 노트북 USB 단자에 연결해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TE를 상용화하는 7월 두 데이터 모뎀을 먼저 출시하고 하반기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LTE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20여 종의 다양한 운영체제(OS)와 다양한 기능과 크기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선보여 스마트 디바이스 경향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KT는 미래의 '스마트 라이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활용해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 요금, 음식점 주문 및 결제, 명함교환, 모바일 뱅킹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사용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태블릿PC와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앱 엔(N)스크린' 서비스도 공개한다. 웹 앱 N스크린은 HTML5 웹을 기반으로 하는 앱을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만 작동했던 앱을 TV에서 리모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LG전자와 삼성전자도 최신제품을 선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3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옵티머스3D'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3D는 3D 콘텐츠의 촬영, 재생, 공유가 가능한 3D 스마트폰으로 3D 촬영을 위한 듀얼렌즈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도 최신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S2'를 중심으로 '75형 3차원(D) 스마트TV'와 삼성의 독자 플랫폼 바다를 탑재한 '웨이브2' 등으로 전시관을 꾸민다.

◇지역 IT/SW업체 경쟁력=광주과학고 동문이 설립한 (주)이앤비소프트는 소니에릭슨 등의 러브콜을 받았던 그린 SW 'Hot Dogu'를 선보인다. 웹상의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을 드래그해 본인이나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유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M&A를 제안받기도 했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회사는 설립 1년 만에 서울, 대구, 경북, 중국 상해에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주)가민정보시스템은 'USB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및 설치기술'로 특허를 받은 기능성 USB '시루'(SiiRU) 등을 선보인다. 시루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지 않고 USB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Windows계열의 OS에는 모두 적용 가능한 신기술로 현재 일본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 조만간 일본시장을 두드릴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기반 임베디드 보드 개발 전문 업체인 (주)리눅스아이티는 'LIT35X-CTU'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이 보드는 TI OMAP3530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OS 탑재 보드로 600MHz ARM Cortex-A8 코어는 1400 DMIPS 성능을 제공하고 430MHz TMS320C64x+ DSP는 고품질 오디오·비디오 코덱과 맞춤형 IP를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모든소프트는 인터넷, 인트라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대의 PC로 64대의 PC를 모니터링·원격제어 가능한 시스템인 '알지뷰'(RGview)를 국내에 첫 선보일 계획이다. 알지뷰는 온라인 멀티 컨트롤 시스템(OMCS)으로 '원격 PC Monitoring 및 제어기능', 'CCTV와 연동한 실시간 화면전송 서비스', '다중 화상회의/DVI 시스템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주)리버스도 최근 개발한 '멀티 프리젠터 마우스'를 선보인다. 기능성 볼트랙 마우스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불법게임물 신고 첫 포상금 지급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 2건에 각 10만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이 확정된 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에 대한 신고 2건으로 환전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해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게임위가 지난달 1일부터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 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메일(singo@grb.or.kr)로 보내면 되며 경찰청 관계자, 문화콘텐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포상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아이들과 함께 별 헤는 밤"

천문동호회 '별사랑' 14일 공개 관측회

"자녀와 함께 달과 토성을 보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이벤트가 광주 첨단 수완지구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천문동호회 '별사랑'은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광산구 장산동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수완점 호수공원 시계탑앞 광장에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관측회를 갖는다.

이번 이벤트는 6인치(구경 150㎜) 쌍안경과 4인치(102㎜)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등 회원들의 다양한 천체망원경 5~6종을 이용해 달 분화구(크레이터)와 토성의 테(ring) 등을 관측하며 우주의 신비를 맛볼 수 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은 지구주위를 돌며 초생달·상현달·보름달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행성인 토성은 적도면의 고리가 특징이다.

김창배(39) 회장은 "광공해가 심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며 "천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별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별사랑'(www.astrolove.kr)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의사, 교사, 학원 원장,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30~40대 사회인들로 구성된 천문동호회로 정기 관측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지난 2009년 4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에서 열린 공개관측회.

45억년전 운석서 새 광물 발견

태양계 탄생 직후인 약 45억년 전에 형성된 운석(隕石)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광물질이 발견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과학자들이 아메리칸 미네랄로지스트 저널 5~6월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크로타이트'(krotite)로 불리는 이 신종 광물질은 일부 고온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합성물질이지만 지금까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적은 없다.

뉴욕시립대(CUNY)와 미국자연사박물관(AMNH)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북서부지역에 떨어진 고대 탄소질 구립 운석 NWA 1934의 미세한 표본에서 채취한 이 물질은 칼슘과 알루미늄,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CaAl2O4로 1500℃의 고온과 저압 상태에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이 운석이 태양의 성운 밀도가 높아지면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생길 때 함께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생긴 모양 때문에 '금 간 달걀'로 불리는 이 운석에서는 크로타이트 외에 최소한 8종의 다른 광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운석의 성분들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기원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